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융권 공적자금 회수율 55.1%에 그쳐

- 지난 10년간 금융권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68.4조원으로 나타났으며, 이 가운데 92.7조원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남.
 - '08.10월말 현재 공적자금 회수율(누계)은 55.1%로 지난 '04년말 42.6%, '05년말 45.3%, '06년말 50.2%, '07년말 53.4%에 비해 높아지는 추세임.
- 재원별 공적자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채권발행이 102.1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이어 회수자금 42.3조원, 공공자금 19.7조원, 기타자금이 4.3조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.
 - 또한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출자전환이 63.5조원, 부실채권매입이 38.5조원, 예금대지급 30.3조원, 출연 및 자산매입 등이 각각 18.6조원, 17.5조원을 기록하였음.
- 금융권별로는 은행이 투입된 총 공적자금 168.4조원 가운데 51.6%인 86.9조원을 지원받았으며, 종금 및 증권, 투신, 보험 등의 제2금융권이 47.0%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남.
 - '97.11~'08.10월말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투입된 총 공적자금 규모는 21.2조원을 기록해 금융권에 투입된 총 공적자금 가운데 약 12.6%를 차지하였음.
- '08년 10월중에는 33억원의 공적자금이 신규 지원되었는데, 이는 예금보험공사의 운교신탁 예금보험금 환입에 1억원,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매입과 관련하여 사후정산에 32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보도됨.

(2008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-금융위원회 금융구조개선과, 12/4)